

“환경오염의 주범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소 설치 반대”

전주시 - 팔복동 주민 공동대응

주민들 “공공 쓰레기 소각장이 아닌 외국계 투자로 사기업 돈벌이 사설 시설... 삼천동에 소각자원센터 위치 시, 주민대표 등과 함께 민·관 공동대응단 구성키로

전주 팔복동 일대 폐기물소각 발전 시설업체(주원)가 추진중인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소 증설허가 신청’에 대해, 전주시는 불허가를 발표했다. 또한, 이곳 주민들도 청와대에 설치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으로 맞서고 있다. 29일 팔복동 주민들 주장에 따르면 이 소각장은 지역별 공공 쓰레기 소각장이 아닌, 외국계 투자로 사기업의 돈벌이 사설 소각시설이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전복지역의 대기와 땅, 하천과 생물을 오염시키는 시설이다. 또한, 이들은 “현재 이미 삼천동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가 위치함으로 팔복동에 더 이상의 소각시설은 불필요하다”며, “이는 전국의 폐기물까지 가져와서 전주에서 태우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주시는 주민대표, 환경단체, 변호사와 함께 민·관 공동대응단을 구성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29일 전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새우 전북녹색연합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만성지구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등 시민·환경단체 대표,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동대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각발전시설업체(주원)은 기존 팔복동 일반 소각장에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소로 증설 추진중이었지만 전주시가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업체는 전주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11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와 주민이 원하는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에 대해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사업체 측에서 제기한 소송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팔복동 공업지역 주변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환경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역과 근접한 공단지역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매입·이전·정비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지역

정치권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과 인접한 각 동별로 주민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더욱이, 시는 환경오염 대책 전담부서를 별도로 신설, 기존 환경오염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장·단기 대책도 수립할 방침이다. 나아가, 팔복동 공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환경오염 업종에 대한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신규 유해업종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입주업체도 점진적으로 친환경업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폐기물발전시설 업체가 요청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부결 및 공사중지명령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공사중지명령 △건축 증축허가 불허가 처분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연장 불가 통보 등을 통해 모두 거부해왔다. 김양원 부시장은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시민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염려가 없도록 주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가을빛에 물든 캠퍼스 29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대학교 교정의 가로수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장은성 기자

신규 원아모집 중단·폐원 사립유치원 속출

학부모들 “어디로 보내야 할지 걱정이네요”

현재 16곳, 교육청에 알리지 않고 학부모에 통보하는 유치원을 많아 실제 규모는 더 클 듯 교육부, ‘공적책임 강화’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집에 속도... 한유총, 오늘 대토론회 갖기로

“우리 아이 어디 보내야 하나요?” 내년 원아모집을 앞두고 신규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속출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교육 당국의 강경 대응방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반발로 문 단거나 학생을 안받겠다는 사립유치원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 집계 결과 26일 기준 전국 16개 유치원이 신규 원아모집을 보류하거나 교육청에 폐원신청을 했다. 하지만 교육청에 알리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직접 폐원, 원아모집 보류를 통보하는 유치원도 많기 때문에 실제 규모는 더 클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운영비 등을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받는 대신 법인으로 전환해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등

공적책임을 강화한 유치원이다. 이처럼 비리유치원 사태를 계기로 대안으로 떠오른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립비로만 약 100억원이 드는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재 공영형 유치원은 서울에 4곳 등 전국에 5곳 뿐이다. 교육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을 40%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공영형 유치원 확대를 발표했다. 문제는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정책에 얼마나 참여하느냐다. 전북지역 사립유치원수는 166곳, 원아수는 1만6천410명으로 전체 취학률이 67.5%에 달한다. /장은성 기자

이에 유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내지 않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해도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치가능하도록 통학차량 지원까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적경과 위 조사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는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대토론회를 가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유총이 최근 전국에 발송한 대토론회 개최 안내 통신문을 보면 “상하의 모두 검은색”이라며 사립유치원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심각치 않다. /장은성 기자

전국 장애인체전 대단원... 전북, 종합 4위 달성

‘내년엔 서울에서 만나요’

지난 25일 부터 열린 제38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가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9일 오후 4시 주 개최지인 익산실내체육관에서 폐회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관련사진 2면) 이날 폐회식은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현을 익산시장,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과 차기 개최지인 서울특별시에서는 윤준병 행정1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푸르른 내일로’라는 주제로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을 축하하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폐회식에는 선전을 펼쳤던 17개 시·도 선수단과 임원뿐만 아니라 성공체전을 이끈 자원봉사자 300여 명과 우리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하여 성공 개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제38회 전국 장애인체전 이어 이번 제38회 전국 장애인체전 역시 우리 시민 모두가 나서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냈다. 이로써 우리시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전국 규모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잠재력을 확인했고,

또한 30만 우리 시민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폐회식 행사는 ‘웃음꽃 메아리’를 테마로 식전행사에서는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을 시작으로 인기 트로트 가수 박구윤과 부활 8대 보컬 정단의 공연이 관람객의 흥을 돋웠고, 이어 ‘우리 또 다시’라는 테마로 열린 공식행사에서는 JTJ 김문정 아나운서의 개시 통고를 시작으로 17개 시·도 선수단이 차례로 입장한 뒤 종합 성적 발표 및 시상과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폐회사 및 대회기 강하가 진행됐다. 또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 대회기를 반납하면서 바로 이어 차기 개최지인 서울특별시(윤준병 행정1부시장)에 전달되었다. 이후 송하진 지사의 환송사, 정현을 익산시장의 감사인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의 폐회선언으로 성화가 소화되면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한편, 제38회 전국 장애인체전대회에서 전북선수단은 14만2883.92점을 기록해 종합 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익산=우병희 기자